

니제르 Niger



국가정보

니제르 공화국은 서부 아프리카의 내륙국가이다. 사하라 사막이 이 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지 적은 면적만이 사반나 초원으로 되어 있다. 광업은 이 가난한 나라에 경제적 발전을 가져다 주었지만, 기근과 우라늄 시장의

붕괴, 나이지리아의 국경 봉쇄로 해서 경제가 황폐해졌다.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후, 니제르는 계속 승계된 두 개의 군사정부의 통치를 받았다. 니제르는 현재 다당제 정치체제를 갖고 있다. 이 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강한 이슬람 경향을 띠고 있다. 이 무슬림의 땅은 복음에 문이 열려 있지만, 그러한 모든 기회를 활용하기에는 선교사들이 너무 적다.

니제르를 위한 기도제목

- ❖ 추수의 주님께 니제르에 갈 일꾼들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자.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 줄 선교사님을 요청해 왔던 마을들에 갈 일꾼들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자.
- ❖ 니제르에는 전도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또한 전도하는 자들에 대한 박해도 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강해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 ❖ 니제르에서 투아레그족, 풀라니족, 하우사족은 미전도 종족이다. 그들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고, 그들 사이에는 교회도 없다. 복음에 대한 갈망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갈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자.
- ❖ 정부로부터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은 선교사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주님께 그곳에 가서 가난한 자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을 부르시도록 간구하자.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그리스도는 니제르 민족 모두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수도: 니아메

전략 도시: 진데르

인구: 1,200 만

언어: 프랑스어, 하우사어

주종교: 이슬람(97.6%), 토착신앙-애니미즘(2.0%), 개신교(0.21%)

주요 민족 그룹: 하우사족, 제르마족, 소코토 풀라니, 투아레그 족



가난과 절망으로 가득한 니제르는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다. 니제르는 1960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했다. 1974년부터 1991년까지 군사 정권이 장악했고, 1992년에 니제르는 복수 정당제를 수용했다.

많은 거주민들이 먼 지역에 산다. 사막이라는 조건 때문에 길이 좋지 않아서 이동이 어렵다. 드러내지 않고 전도하기에 별 제한이 없어 보이지만, 니제르의 어떤 지역은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니제르 국민들은 그 나라를 황폐케 한 영양실조, 질병, 가난을 부끄러워 한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올 수 있는 기쁨과 희망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비록 명목상 신자이긴 하지만, 인구의 80% 이상이 무슬림이다. 토착신앙인 애니미즘 역시 널리 행해지는데, 특히 이슬람을 배우는 센터인 바스라시와 러근 마을에서 행해진다. 문화적 장벽 때문에 부족 간에, 또한 선교사들과 국민들 간의 관계에 갈등과 편견이 있어 왔다. 니제르 국민 10%만이 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 방식의 전도는 매우 어렵다.

가난과 기근으로 니제르는 많은 희생을 치렀다. 어떤 지역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먹을 식량이 없어서 매일 아침 가족들은 안자(anza)라 불리는 소중하고 영양분이 많은 관목을 찾기 위해 여러 마일을 돌아다녀야만 한다. 식량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많은 노인과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와 감염성질병으로 죽는다. 엄마들은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을 도울 길 없이 바라보고만 있다. 니제르 사람들은 종교를 바꿀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도, 복음에 대해 응답하는 자는 거의 없다. 북 니제르의 유목 무슬림인 투아레그족과 토착신앙집단인 와다베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긴 하지만 어떤 주요 돌파구가 있지 않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마을의 원로들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더 배울 수 있도록 선교사가 와서 그들과 함께 살아달라고 요청했다. 요청한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누구도 그 초대에 응답한 사람은 없다.